

(주)유일컴, 신읍동 아름다운 간판 당선작

신읍동 아름다운 간판추진위원회, 8월12일 심사결과

포천시는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작품 공모 응모작품 심사를 8월12일 포천시청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중심도로인 신읍동 중앙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특징 있는 거리에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이번 디자인 공모에 총 6개 업체가 응모했다.

이날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디자인 관련 대학교수, 포천지역 건축사, 주민대표, 경기도청 도시경관담당 등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참여업체별

로 10분간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1차 심사에서 4개의 작품을 탈락시키고 2차 결선심사에서 심사표에 의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한 파주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정비사업과 남양주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 등 경험이 풍부한 (주)유일컴(대표 유효상)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신읍동 아름다운 간판추진위원회(위원장 지현춘)와 시 관계자는 "당선된 업체 및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당선작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전곡을 대표하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모습

가로등 격등제·고효율 등기구 교체 추진

포천시 고유가 시대 맞아 공공부문 에너지대책 마련

포천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7월25일부터 가로등 격등제 실시 및 고효율 등기구 교체를 통해 연간 2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등용 가로등, 미개통 도로, 교량, 경관조명등을 위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정기순찰 강화와 보수업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고장 및 불량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최소 조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포천시는 전체면적이 826.64km(서울시의 1.4배)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범위가 넓고 주요 국도변 양측에 50~70m 간격으로 가로등이 격등으로 설치돼 있어 도시 전체가 대체로 어두운 실정임을 감안해 초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도로 여건과 주변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장기적

인 에너지절약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기존 250W 나트륨램프를 고효율메탈램프 150W로 낮추어 예산 절감을 하고자 제품의 성능비교 등을 위해 15등을 시범설치 검토하여 현재 88등을 설치 중이다.

시범설치 결과 고효율 메탈램프는 도로 조명으로 우수하고 기존제품 대비 40%의 절전효과가 있으며 기존의 나트륨램프는 주황색으로 색상이 우중충한 반면 고효율 메탈램프는 백색광원으로 색상 구현력이 뛰어나고 쾌적한 느낌이 들어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천시는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에 의거 고효율 등기구 교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 실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가로등 격등제 운영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7월25일부터 가로등 격등제 실시 및 고효율 등기구 교체를 통해 연간 2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F P 교 실 ②

보험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A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해약금은 2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늘었다고 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해약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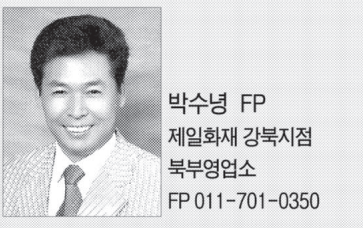
그러나 생활이 어렵다고 갖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보험해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상품 등은 '보험료 납입 일시정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을 우선 정지하겠다'

고 연락하면 보험사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월 보험료로 대체 납입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인출제도가 가능한 상품은 필요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출은 대출과 달리 이자를 내거나 갚는 돈을 다시 넣어야 하는 일도 없다. 내가 낸 돈 중 필요한 만큼 찾아 쓰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약관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박수영 FP 제일화재 강북지점 북부영업소 FP 011-701-0350

경기사이버장터 그린투어마을로 지정

경기도사이버장터 그린투어에서 8월13일 경기도 포천지동산촌마을을 찾아왔다.

포천지동산촌마을을 그린투어에 참가한 경기사이버장터 회원 29명(어른 15명, 어린이 14명)은 전문 프로그램 진행자(바라기닷컴)의 진행으로 천년수, 효자문, 경학 및 옥수수 따기, 물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지동산촌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옥수수를 맛보는 즐거운 시간을

을 가졌다. 이날 체험을 마친 경기사이버장터 그린투어팀은 포천지동산촌마을이 경기사이버장터 그린투어 마을로 지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했다.

포천지동산촌마을은 연중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펜션, 오피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체험 및 숙박 예약 문의: 지동산촌마을센터 031-535-5399)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73 에이원요양보호사교육원

100% 취업달성 수료생 전원 근무中



원장 고영현

포천시 신단동 52-1번지에 위치한 에이원요양보호사교육원이 2008년 4월 28일 개원과 함께 제1기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1,2급 700여명을 수료시키고 현재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에 제2기 교육이 한창이다.

고영현 원장(53.사진)은 "30년간 학원운영 경험을 살려 영리목적보다는 요양보호사 직업정착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마음으로 개원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을 맡고 있는 김진수 교수는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혜마을의 설립부터 운영을 맡아오던 실경험을 살려 요양보호사로 취업 후 현장에서 필요한 생생한 소재를 가지고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김진수 교수는 "노력하는 자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듯이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을 취득 후 여러 가지 노력하는 바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지역사회의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자원 봉사도 하고 후원을 하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럴 때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과 자부심, 그리고 취업의 길이 열릴 것이다"며 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식시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1급 과정과 2급 과정이 있고 신규, 경력자, 자격자 과정이 있다.

신규자는 총 240시간(이론80,실기80,실습80), 경력자(노인시설 또는 재가 노인시설에서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60시간(이론80, 실기40, 실습40), 자격자(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직업치료사·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자격에 따라 40~50시간을 이수해야

현장경험 풍부한 전문 강사진과 커리큘럼 자랑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으로 정년퇴직 준비하자

또한, "장학금전달과 같은 사회환원사업과 더불어 본원의 교육생 전원 100%취업 달성으로 현재까지 수료생 전원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의 설립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에이원요양보호사교육원은 다른 교육원들과 달리 교육의 질적 향상, 실전에 강한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에이원의 차별화된 장점으로 고 원장은 얼마 전 영입한 김진수 교수를 손꼽는다. 전임 교육

원장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에이원요양보호사교육원(031-544-1555)으로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다.

고령화시대에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봉사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의 일환인 요양보호사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볼 수 있는 사람은 에이원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성구 기자 cho2182@paran.com



에이원요양보호사교육원의 전일교육을 받고 있는 김진수 교수의 강의 모습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늦어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구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 ~ 4487/4502 ~ 4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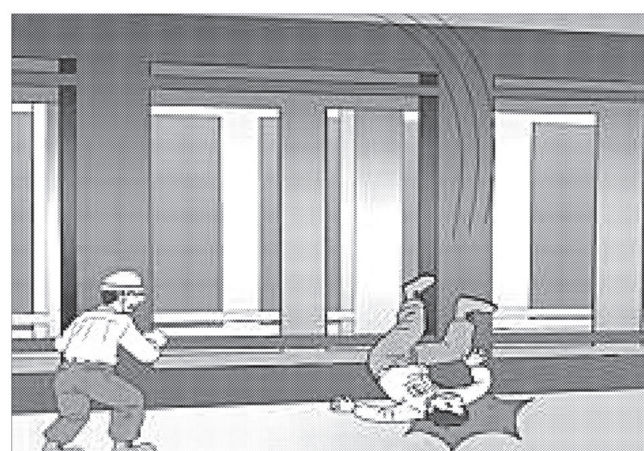
산업안전사고 예방

교량작업대 상부에서 용접작업중 추락

▶ 재해발생 개요 200년 3월 09일 오후 4시 경 금속제품제조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교량설치용 작업대 상부에서 마무리 용접작업중 용접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을 찾기 위해 작업대 상부 이동 중 실족하여 3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교량 건설공사시 사용되는 교량작업대를 제지하는 장소가 3m이상의 고소로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나. 안전보호구 미착용 추락위험이 있는 3m이상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교량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을 실시함에도 안전모를 미착용 한 채로 작업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 방지조치 실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교량 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교량작업대 주위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교량작업대 상부 빔 사이 개구부 하단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며,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교량작업대 상부 외곽으로 안전대

국민연금 Q&A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폐지

▶ 개정내용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함

▶ Q&A 【사례 1】 고객: 저는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실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취지를 고려하여 연금과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Q&A 【사례 2】 고객: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정지중입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상담: 네,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정지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전부터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에게도 2007.7월 분 부터는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 031-544-8700